

## 기업체들에서의 가격제정방법

### 두 광 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전략을 잘 세우고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57페이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하여 당과 국가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업관리방법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진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국가에서 부여한 가격제정권을 원활하게 활용하는것이다.

기업체들에 부여된 가격제정권은 기업체들이 국가가 정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 가격을 정하게 된 지표들에 대하여 자체로 또는 수요자와 합의하여 정한 다음 해당 국가가격 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할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기업체들이 가격제정권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생산물의 원가를 보상하면서도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가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에서의 가격제정방법은 기업체의 경영전략에 따라 원가, 수요와 공급 등 여러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제품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타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업체들에서 합리적인 가격제정방법을 적용하는것은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업체들에서는 생산경영조건과 환경, 경영전략에 따라 여러가지 가격제정방법을 적용할수 있다.

기업체들이 적용할수 있는 가격제정방법에는 무엇보다먼저 원가에 기초한 가격제정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생산물의 원가를 타산하고 그것을 충분히 보상할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수준을 규정하는 방법으로서 기업체들에서 가격제정의 기본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기업체들의 생산경영조건이 서로 다르고 매개 제품의 생산소비적특성이 서로 다른것으로 하여 원가에 기초한 가격제정에서는 여러가지 계산방법을 적용할수 있다.

기업체들에서는 우선 실지원가에 기초하여 가격을 제정할수 있다.

실지원가는 기업체의 계획원가나 실적원가와 그 타산목적과 방법에서 차이난다.

계획원가는 계획기간 기업체에서 생산에 지출되는 비용을 그 저하방도를 타산하여 규정하는 원가로서 생산요소별 지출기준에 기초하여 국가제정가격이나 기준가격으로 타

산하여야 한다. 계획원가를 타산하는것은 기업체들에서 비용지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서 의의를 가진다.

실적원가는 원가계획실행정도를 계획원가와 대비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계획기간 지출된 비용을 계산한 원가이다. 실적원가는 기업체들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현물적으로 얼마나 절약하였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타산하는것으로서 계획원가타산에서와 같은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실지원가는 생산물의 생산과 판매에 실지 지출된 비용으로서 국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생산수단은 국정가격으로, 기업체들에서 자체로 구입한 물자들은 실지 구입가격으로 타산하여야 한다. 실지원가는 기업체에서 실지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고 재생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격을 바로 제정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생산물단위당 실지원가는 원가항목별로 계산하여 합하는 방법으로 규정할수 있다.

실지원가항목가운데서 자재비와 연료비, 동력비는 계획원가나 실적원가와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자재와 연료, 동력비를 기업체들에서 규정한 소비기준에 기초하여 타산하여야 한다. 그것은 기업체마다 물질기술적조건에 따라 소비기준이 다르기때문이다.

실지원가타산에서 자재와 연료, 동력의 단위당 가격은 국가로부터 보장받았을 경우에는 국정가격을, 자체로 구입한 물자들은 실지 구입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제품단위당 자재비를 타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제품단위당 자재비} = \sum \frac{\text{제품단위당 국가로부터 받은 자재품종별 소비기준}}{\text{자재품종별 소비기준}} \times \frac{\text{자재품종별 국정도매가격}}{\text{자재품종별 소비기준}} + \sum \frac{\text{제품단위당 자체로 구입한 자재품종별 소비기준}}{\text{자재품종별 소비기준}} \times \frac{\text{자재품종별 구입가격}}{\text{자재품종별 소비기준}}$$

제품단위당 생활비는 생활비계획에서 예견되는 생활비총액과 총로동용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타산할수 있다.

$$\begin{aligned} \text{제품단위당 생활비} &= \frac{\text{제품단위당 로동지출단위당 생활비}}{\text{총합로동정량}} \times \frac{\text{로동지출단위당 생활비}}{\text{로동지출단위당 생활비}} \\ &= \frac{\text{제품단위당 로동지출단위당 생활비}}{\text{총합로동정량}} \times \frac{\text{기업체의 생활비총액}}{\text{기업체의 총로동용량}} \end{aligned}$$

감가상각비는 기업체의 고정재산형태별 년감가상각금을 먼저 규정하고 그것을 제품별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타산할수 있다. 고정재산형태별 년감가상각금은 해당 고정재산의 시초가격과 사용기간에 있게 되는 대보수비, 폐기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과 폐기한 결과 얻게 되는 회수자재비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text{고정재산형태별 년감가상각금} = \frac{\text{시초가격} + \text{대보수비} + \text{폐기비} - \text{회수자재비}}{\text{고정재산형태별내용년한}}$$

고정재산형태별 년감가상각금이 규정되면 그에 기초하여 년감가상각금총액을 규정하여야 한다.

$$\text{년감가상각금 총액} = \sum \text{고정재산형태별 년감가상각금}$$

년감가상각금총액이 규정되면 그것을 배분기준에 따라 제품별로 배분하여 제품단위당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년감가상각금총액을 제품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제품단

위당 가공시간 또는 생활비로 할수 있다.

$$\frac{\text{제품단위당}}{\text{감가상각비}} = \frac{\text{제품단위당}}{\text{생활비}} \times \frac{\text{감가상각금총액}}{\text{생활비총액}}$$

제품단위당 요금 및 수송비는 원료 및 자재를 사들여오는것과 관련하여 지불되는것 만큼 제품단위당 원료 및 자재비에 비례하여 배분할수 있다.

$$\frac{\text{제품단위당}}{\text{요금 및 수송비}} = \frac{\text{제품단위당}}{\text{원료 및 자재비}} \times \frac{\text{요금 및 수송비총액}}{\text{원료 및 자재비총액}}$$

일반비는 기업소와 직장의 일반적인 관리비용을 포함시켜 일반비총액을 규정하고 제품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일반비총액은 세분항목별로 계산하여 합하는 방법으로 타산하여야 하며 세분항목별 비용은 항목별 현물지출기준과 단위당 가격에 의하여 타산하여야 한다.

일반비총액을 제품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생활비로 규정하는것이 합리적이다.

$$\frac{\text{제품단위당}}{\text{일반비}} = \frac{\text{제품단위당}}{\text{생활비}} \times \frac{\text{일반비총액}}{\text{생활비총액}}$$

이와 같이 항목별비용을 타산하고 그것을 모두 종합하여 생산물단위당 실지원가를 규정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확대재생산을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원가를 타산한데 기초하여 일정한 리윤이 보장되도록 가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품단위당 리윤은 제품생산량이나 수익성, 판매액에 기초하여 타산할수 있다.

기업체들에서는 실지원가와 리윤을 타산하고 여기에 판매가격의 일정한 비율로 거래 수입금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격수준을 규정할수 있다.

첫째로, 제품생산량에 따르는 리윤에 기초하여 타산할수 있다.

$$\text{가격} = \frac{\text{실지원가} + \text{제품단위당 리윤}}{1 - \text{거래수입금률}}$$

$$\text{제품단위당 리윤} = \frac{\text{리윤총액}}{\text{제품생산량}}$$

이 방법은 주로 단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들에서 적용할수 있다.

둘째로, 수익성에 기초하여 타산할수 있다.

$$\text{가격} = \frac{\text{실지원가} \times (1 + \text{수익성})}{1 - \text{거래수입금률}}$$

$$\text{수익성} = \frac{\text{리윤총액}}{\text{총원가}}$$

이 방법은 매개 제품별로 실지원가에 따라 리윤규모를 규정함으로써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들에서 제품들사이의 가격균형을 합리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셋째로, 제품판매액에 따르는 리윤에 기초하여 타산할수 있다.

$$\text{가격} = \frac{\text{실지원가}}{1 - \text{판매액단위당 리윤} - \text{거래수입금률}}$$

$$\text{판매액단위당 리윤} = \frac{\text{리윤총액}}{\text{제품판매총량}}$$

이 방법은 품종이 복잡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체들에서 적용할수 있다.

이상의 3가지 방법에서 나서는 요구는 가격이 실지원가와 거래수입금을 보상한 후 일정한 리윤을 얻을수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여기서 리윤총액은 지난 시기의 실적자료와 기업체의 경영전략에 따르는 합리적인 규모로 타산하여야 한다.

실지원가에 기초한 방법은 경영관리가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기업체들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보장되고 원가가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는 제품에 적용할수 있다.

기업체들에서는 또한 가공비에 기초하여 가격을 제정할수 있다

실지원가에 기초한 방법을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원자재비비중이 비교적 큰 가공품이나 협동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제정에 적용하는 경우 협동생산하는 기업체들사이에 리익이 너무 높거나 낮게 분배되어 불균형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따라서 주문계약에 따르는 임가 공제품이나 협동생산품들의 가격은 가공비에 기초하여 타산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이 방법은 실지원가를 보상하는 조건에서 리윤을 기업체안에서 제품을 가공하는데 새로 지출하는 비용에 따라 계산함으로써 리윤이 기업체에서 직접 지출하는 로동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가격} = \frac{\text{구입가격} + \text{가공비} \times (1 + \text{가공비단위당 리윤})}{1 - \text{가공제품의 거래수입금률}}$$

$$\text{가공비단위당 리윤} = \frac{\text{리윤총액}}{\text{가공비총액}}$$

기업체들에서는 또한 기업체의 계획원가에 기초하여 가격을 제정할수 있다.

기업체의 계획원가는 앞으로의 생산경영활동과 객관적조건의 변화에 의한 원가저하를 고려하여 타산한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가격제정시기의 실지원가보다 낮다.

이 방법은 일정한 기간에 도달할수 있는 계획원가에 기초하여 계획리윤과 거래수입금을 더하여 가격을 제정하는 방법으로서 기업체의 가격제정목표에 기초한 비교적 오랜기간의 장기적인 리익을 증시하는 가격제정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text{가격} = \frac{\text{계획원가} \times (1 + \text{리윤률})}{1 - \text{거래수입금률}}$$

$$\text{리윤률} = \frac{\text{리윤총액}}{\sum (\text{계획원가} \times \text{생산량})}$$

이 방법은 생산이 활성화되고 발전전도가 좋은 기업체들에서 장기적이고 전망적인 리익을 위하여 적용할수 있다.

기업체들이 적용할수 있는 가격제정방법에는 다음으로 수요자와의 합의에 기초한 방법이 있다.

기업체들에서 주문계약에 따르는 임가공제품을 비롯한 수요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제품의 가격은 원가를 보상하고 확대재생산을 실현할수 있게 정하면서도 수요와 공급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생산자와 수요자의 리익이 다같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판매자단위는 자기 단위에 이미 등록되어있는 기준가격과 원가를 고려하여 일정한 순소득이 조성되게 수요자단위와 합의하여야 한다.

수요자와의 합의에 의한 가격은 해당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국정도매가격과 합의등

록가격과의 배리결수를 계산하여 새로 합의가격을 정하려는 제품의 국정도매가격에 곱하는 방법으로 정할수 있다.

$$\frac{\text{해당 제품의 합의가격}}{\text{국정도매가격}} = \frac{\text{해당 제품의 류사한 제품의 합의등록가격}}{\text{류사한 제품의 국정도매가격}}$$

이와 같이 생산자기업체와 수요자기업체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제품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해당 가격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이 적용할수 있는 가격제정방법에는 다음으로 제품의 질적수준을 대비하여 타산하는 방법이 있다.

어떤 제품이든 다 일정한 질적표준이 있으며 매 제품의 가격수준은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품의 질은 해당 생산물이 가지고있는 유용성을 규정하는 속성들의 총체이다.

생산물의 유용성은 사람들의 일정한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성질이며 이것은 제품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속성을 통하여 표현된다.

여기서 속성은 해당 생산물의 쓸모를 나타내는 질의 어느 한 측면만을 규정하는 개별적인 성질을 말한다. 실례로 신발의 쓸모를 규정하는 속성으로서는 수명, 맵시, 편리성, 무게 등을 들수 있는데 이러한 속성들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하여 신발의 질이 평가된다.

제품의 질적수준을 대비하여 가격을 타산하는데서는 제품의 질을 평가하는데서 해당 질지표가 차지하는 무게(비중)를 고려한 복합결수를 리용할수 있다.

제품의 질은 여러가지 지표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제품의 질을 반영하는 여러가지 지표들은 생산물의 생산소비적특성에 따라 질을 평가하는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제품의 가격은 질적지표가운데서 경제적인의의가 큰 순위로 몇가지를 선택하여 그것들의 비중에 따르는 결수를 만들고 기준제품 가격에 곱하는 방법으로 정할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제품별로 질을 반영하는 지표와 그 비중을 바로 설정하는것이다.

실례로 천신발의 질적지표를 수명과 겔보기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가정할 때 새로 생산하는 신발이 일반천신발보다 수명은 2배, 편리성과 겔모양은 1.2배이고 질평가지표의 무게에서 수명이 70%, 편리성과 겔모양이 30%를 차지한다고 하자.

이때 수명과 편리성, 겔모양의 개선에 따르는 가격결수는 다음과 같이 타산할수 있다.

$$2 \times 70 / 100 = 1.4$$

$$1.2 \times 30 / 100 = 0.36$$

$$1.4 + 0.36 = 1.76$$

따라서 새로운 신발의 가격은 일반천신발가격의 1.76배로 타산할수 있다.

이 방법은 해당 제품의 질적상태를 직접 등급으로 표시할수 없고 그것이 여러가지 지표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생산물의 가격제정에 리용할수 있다.

모든 기업체들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제정방법에 기초하여 가격을 바로 정함으로써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관리를 개선하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야 할것이다.